"새 계열사 동원 신규순환출자 규제 대상" 공정위 제동에

産銀 "금호산업 구조조정안 재검토"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한 금호산업의 정상화 방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29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장은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채권단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에 없던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산업 채권단의 구조조정안에 담긴 신규순환출자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마련한 구조조정안은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금호산업 기업어음 790억원 어치를 출자전환한 뒤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에 이를 매각하는 방안이다.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출자전환한 뒤 지분 9.5% 가량의 관련 주식을 금호터미널에 매각하면 '금호산업-아시아나-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연결되는 신규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 출자전환이 완료되면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은 현재 80% 이상에서 50% 미만으로 떨어져 증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구조조정 기업이 불가피한 신규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지만, 이번 금호산업 구조조정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외를 인정하려고 했던 것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결정해 대주주에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며 "대주주가 사재출연 형식으로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나 기존 주주인 계열사가 추가 증자에 참여할 때만 예외를 인정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전격 제동에 산업은행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며 구조조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안과 배치된다면 안 하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며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채권단 의견을 들어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기업어음을 출자전환한 뒤 금융시장에 파는 방안 등을 포함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수정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경우 상호출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공정위로부터 가능하다고 확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호산업은 자본잠식률이 80%를 넘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현 대주주 등을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을 해야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보해양조-광주대 산학협력 협약 보해양조와 광주대는 29일 오전 광주대 총장실에서 김혁종(왼쪽에서 네번째) 광주대 총장과 임효섭(〃 다섯번째) 보해양조 사장을 비롯한 관련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보해양조 제공〉

금호산업 "채권단 결정 따르겠지만 신규순환출자 예외 인정해주길"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놓고, 채권단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규제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29일 금호그룹에 따르면 구조조정 기업의 전 대주주로서 부실 책임을 지고 기업 회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계열사 중에 현재 자금 여력이 있는 곳이 금호터미널뿐이라고 밝혔다. 금호터미널은 올해 4월 광주터미널 내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장기 임대 보증금 5000억원을 받아 자금 여유가 생겼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현재 워크아웃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가 채권단이어서 유상증자를 하려면 채권단이 추가로 자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은행이 채권 금융기관들의 추가 자금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금호산업을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단의 판단과 결정을 따르는 것은 물론, 전 대주주로서 부실 책임을 지고 기업 회생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이 검토중인 수정안은 원래 계획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되 이를 금호터미널이 아닌 시장에 내다 파는 방안이다.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간 상호출자 문제가 생겨 6개월 안에 매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호산업의 주식에 대해 시장의 시선은 차가운 상황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국세청 간부 100대 기업 임원과 식사·골프 금지

고강도 쇄신책 발표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연루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고위공직자 감찰반이 설치되며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들의 세무조사 결과는 국세청 감사관실이 모두 정밀 검증한다.

국세청은 29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고위직 비리 연루 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만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지하경제양성화 등 국정 과제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과의 식사나 골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엄중하게 제재하되 사무실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해 상시 감찰 활동을 벌이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를 추가한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 매년 초, 그리고 보직 변경 및 승진 시 새로 서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약 1000개)의 세무조사 결과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전수 정밀 검증을 하기로 했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영업 노하우 전수·매장 개선 후원

광주신세계, 양동시장 지원 나섰다

상생·동반성장 업무협약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현지법인으로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나섰다.

29일 광주신세계는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과 동반성장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백화점의 유통노하우와 마케팅 기법을 전통시장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해 지원하는 '희망가게 프로젝트'. 전통시장 내 영업환경이 열악한 매장을 선정, 리모델링을 후원하는 희망가게는 백화점식 진열기법과 상품 가격 표식 등 광고마케팅 경영 노하우 전수에서부터 상점 리모델링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는 사업이다.

또 양동시장의 특화품목인 한복, 수산물 등의 상품 우수성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위해 백화점 내 전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후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광주신세계가 29일 양동시장과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기획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노래교실과 명사초청 특강, 고객만족 서비스 강좌 등 다양한 문화·기획강좌를 시장상인회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약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광주시 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100여명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희망배달마차' 행사도 양동시장문화센터(YCC) 광장에서 진행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무안공항에 출입국관리 출장소 설치를

광주상의 정부에 건의

광주상공회의소가 최근 이용수요가 급증한 무안국제공항에 출입국관리 출장소를 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광주상의는 29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안전행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법무부 장관, 새누리당·민주당 대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에게 보낸 건의문에서 "무안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및 이용객이 최근 급증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 업무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부재로 무안공항의 서남권 허브공항으로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세관과 출입국관리, 검역기능은 국제공항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필수기능인데도 전담직원이나 관리조직조차 없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국제노선 확대에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 출입국관리 업무는 광주출입국사무소 전 직원이 순환제로 출장처리를 하고 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 인사

카드 강 원·자산운용 박종규

이순우 회장이 취임한 지 2개월 반만에 우리금융의 계열사 대표 인사가 일단락됐다. 우리금융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카드 사장에 강원 전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아비바생명 사장에 김병효 우리은행 부행장, 우리자산운용 사장에는 박종규 전 유리자산운용 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임해 이사회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은행장 후보는 행장후보추천위원회가 30일 오전 면담을 거쳐 낙점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 (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 1907.54 (+23.02)	▲ 520.37 (+2.93)	▼ 2.91% (-0.02)	▼ 1109.70원 (-5.70)